

통일부, 비대면 마라톤 「평화 이어달리기 챌린지」 개최

- 10.29.~11.25.(4주간) 모바일 앱(워크온)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
- 4.27km, 6.15km 등 남북관계 상징 거리 달리기, 1,200km 단체 달리기 등 진행

【관련 국정과제】 117.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·통일정책 추진

□ 통일부는 10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주간 비대면 마라톤 행사 「평화 이어달리기 챌린지」를 진행한다.

- 올해 처음 개최되는 「평화 이어달리기 챌린지」의 공식 슬로건은 “함께 달리는 오늘, 이어지는 평화공존의 길”로,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 발걸음이 한반도 평화공존과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.

□ 이번 행사는 모바일 앱 ‘워크온(WalkON)’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며, 참가자는 챌린지 기간 동안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.

- 챌린지 미션은 크게 개인·단체·전체 및 평화 배턴 릴레이로 나뉜다.
- 개인 미션은 남북관계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5가지 날짜를 km 단위로 환산한 각 거리를 걷거나 달려 모두 완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

거리	주요 내용
4.27km	2018.4.27. 「판문점선언」 합의
6.15km	2000.6.15. 「6·15 남북공동선언」 합의
8.15km	광복절
9.19km	2005.9.19. 「9·19 공동성명」/ 2018.9.19. 「평양공동선언」 및 「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」 합의
12.13km	1991.12.13. 「남북기본합의서」 합의

- 단체 미션은 2인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챌린지 기간 중 누적 합산 거리 1,200km(한반도 3천리)를 완주하는 미션이다.
 - 전체 미션은 모든 참여자가 달린 거리를 누적 합산하여 40,000km(지구 한 바퀴)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 - 아울러, 러닝 크루를 대상으로 ‘평화 배턴 릴레이’도 진행한다. 전국의 러닝 크루가 지역별 구간을 나눠 달리고, SNS를 통해 다음 단체를 지목하는 방식을 통해 평화 공감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한다.
- 통일부는 미션을 달성하고 SNS에 인증한 참가자 중 1,6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하고, 우수 참여자 3명(팀)에게는 통일부장관상 및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.
- 미션 세부내용, 경품 구성 및 우수 참여자 선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챌린지 기간 중 ‘위크온’의 전용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- 통일부 관계자는 “「평화 이어달리기 챌린지」를 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세계 평화의 비전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”며, “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·체육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 : 「평화 이어달리기 챌린지」 포스터

담당 부서	통일정책실 시민사회협력과	책임자	과 장	송희경 (02-2100-5561)
		담당자	사무관	박학용 (02-2100-5565)



